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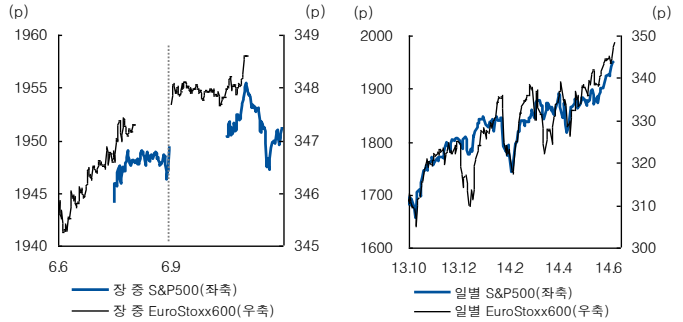
선물옵션 김영성 (02-768-4120) youngsung.kim@dwsec.com (D형-선물 만기)

[US Stock Index] M&A 기대감과 연준 인사의 발언에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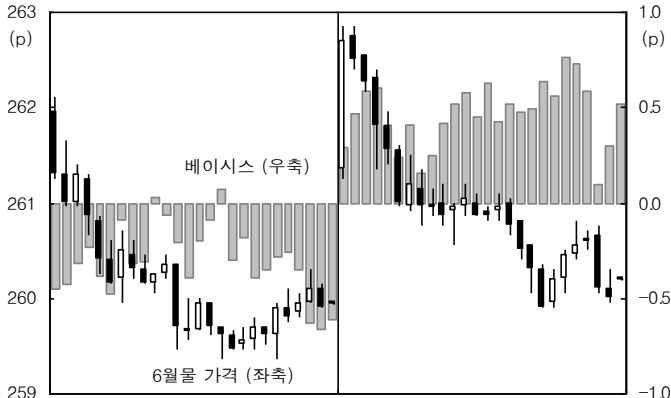
- 미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 속 미국 기업 M&A 소식과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상승. 다우와 S&P500은 최고치 경신
-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는 식품업체 힐사이어브랜즈를 85.5만 달러에, 머크도 아이데닉스를 38.5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과 M&A 소식에 상승
- 로젠그렌 총재는 경제성장세에 대한 확신없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안 된다고 강조. 블라드 총재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저물가가 우려된다는 기존 시각이 변했음을 암시

DOW	NASDAQ	S&P500	Phil. Semi.
16,943.10	4,336.24	1,951.27	618.44
+18.82(+0.11%)	+14.84(+0.34%)	+1.83(+0.09%)	+1.19(+0.1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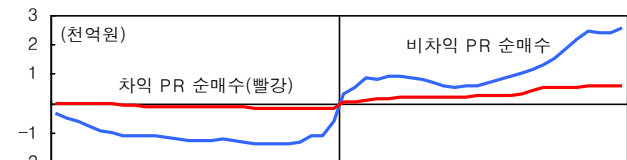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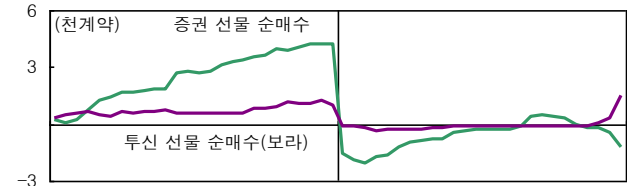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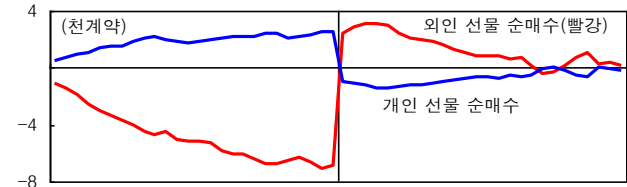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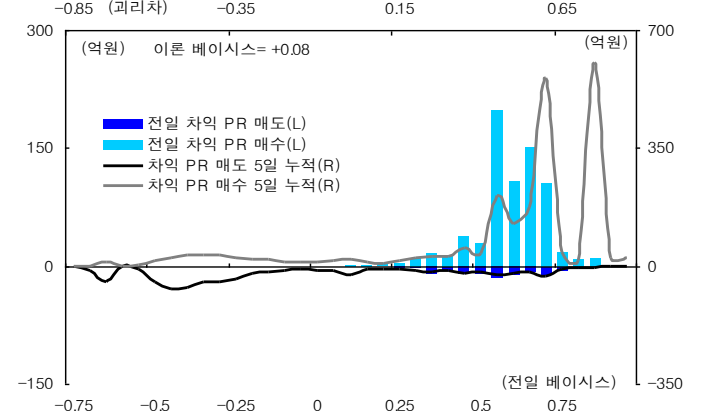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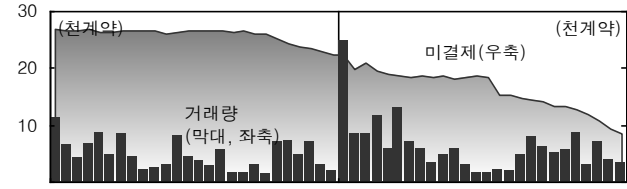
- 독일 DAX 10,008.63(+21.44, +0.21%), 영국 FTSE100 6,875.00(+16.79, +0.24%)
- WTI NYMEX 연결물 \$104.41(+\$1.75), 금 COMEX 연결물 \$1,253.50(+\$1.40)



[Review] 주세별 증물보다 PR 순매수와 종목 순매도가 증물하며 지수 하락 이끌어



- 갭 상승(+1.41p) 직후 반락해 14시까지 하락한 후 막판 등락. 현물의 빠른 하락으로 괴리차 상승하면서 PR 순매수 유입되었으나 외인+사모+증권의 종목 순매도로 지수 하락
- 현물 외인, 비차익 순매수 전일대비 증가했으나 상당수는 비공식 차익. 바스켓 순매수 약화 추세였고 GEM 자금 유출도 확인되었기 때문. 단, 증가에 PR로 +250억 원 유입
- 외인 비차익 순매수 증가하자 종목 순매도도 동반 증가했으며 시총 상위주도 매도 우위로 하락 압력 가중시켜. 삼전 -717, 하이닉스 -74, 현대차 -151, 신한지주 -144억 원
- 선물 외인, 4일만에 순매수 반전. 초반 +3318계약 집중 후 10시부터 순매도 반전해 +176계약 마감. 콜오버를 제외한 실질 미결제는 +4906계약, 초반 +5600계약에 이르러
- 10시부터 순매도 반전, 장중 회전에 그쳤다는 점으로 볼 때, 경기 세력 관망 속 초단기 세력의 회전이 유력. 개인+기관 순매수로 현물 대비 선물의 낙폭 적어 괴리차 반등
- 현물의 상대적 약세로 괴리차는 장중 내내 고평가. 한 때, 최대 +0.8p에 근접하기도. 이에 따라 외인+증권+보험의 공식+비공식 차익 매수가 반응하며 장중 지수 하락을 방어



KOSPI200	KODEX200	TIGER200	최근 월물			
259.68 -0.88	25,945 -5	25,945 -20	260.20 0.25			
basis(C, 1min)	거래량(전일비)	미결제약정(최고/중가/전일비)	잔존만기			
0.52 0.50	166,285 38,590	-28 93,562 -13,730	4			
매수 차익잔고	관련 선물 매도	매도 차익잔고	관련 선물 매수			
92,531 412	93,333 412	63,633 -160	63,658 -158			
PR 매수(차익, 비차익, 전일, 비중)	PR 매도(차익, 비차익, 전일, 비중)					
134 8,908 11,540 17.6%	316 9,512 11,052 19.1%					
외국인	개인	증권	투신	ATM	Call	Put
현물 213 -189 167 171	260	1.48	1.29			
선물 176 -195 -1,195 1,521	(+/-)	-0.17	-0.36			
(누적) 7,728 7,988 17 -16,897	imp.Vol	14.7%	10.7%			
콜옵션 4,481 4,973 -9,463 -52	거래량	126,521	273,287			
(누적) 16,361 92,069 -103,031 -1,600	거래량 비중	9.17%	20.22%			
풋옵션 1,997 12,385 -16,224 206	미결제약정	26,611	28,163			
(누적) 82,053 45,834 -123,734 -239	(+/-)	1,894	2,357			

주 1) 베이스스 C : 증가, 15min : 장 중 15분 평균
2) 미결제약정 최고 : 장 중 최고치, 잔존만기 : 선물 최근 월물/옵션 최근 월물
3) 프로그램 매도 비중 : 전체 주식거래대금 대비, 프로그램 매도 전일 : 전일 합계

선물옵션 김영성 (02-768-4120) youngsung.kim@dwsec.com (D형-선물 만기)

[Preview]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

- 제한적 등락 전망. 미 증시 등락에 둔감한 아간선물의 반응, 수급적 교착 상태 지속으로 상승도 하락도 쉽지 않아. 상승 위해서는 중기 선물 외인 순매수 필요하지만 관망 또는 순매도 가능성 높아
- 기술적으로는 조정 국면 마무리 단계. Stochastic slow 과매도권에 근접해있어 추가 조정 기간은 1~2일 가량. 60MA, 200MA(1980p)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추가 낙폭 확대는 제한적
- 수급적으로는 제한적 등락. 대형주 순매도 불구, 선물 외인 순매수 없으면 PR 순매수는 하락 방어 수준에 그칠 것. 지수 상승한다면 투신 순매도 재개 및 PR의 저항 받을 수 있어 상승도 제한될 것
- 현물 외인 바스켓 매수와 투신 매도 동반 감소. GEM 자금 유출 전환과 지수 하락으로 인한 환매 감소 때문. 오히려 삼성그룹주 이슈와 원화 강세에 따른 자동차 약세 등 대형주 수급 약화가 문제
- 따라서 금일도 전일에 이어 '주체별 총물'보다는 'PR 순매수 vs 종목 순매도' 구도의 가능성 높아. 특히, 종목 순매도는 시총 상위 대형주에 집중될 것이므로 정성적 지수 하락 압력 높아 주의해야
- 지수 방어를 위해서는 선물 외인 순매수 > 괴리차 상승 > PR순매수 유입이 필요. 단, 중기 선물 외인은 주말에 신규매도 관찰되었으며 이후 관망하고 있어 적극적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워

[Issue] 6월 선물 만기 UpdateD-2가 SP는 상승 제한-막판 하락 단 충격 가능성은 희박

- 전일 6-9 SP 시장은 1.45p 상승(고가 1.5p). 거래량은 43,359계약으로 급증했으며 43.7%는 롤-오버, 나머지는 회전성 투기/차익. 콜 금리 이론가 1.48p, 외인 기준 이론가는 0.849p
- SP 상승해 콜 금리 이론가에 접근. 외인은 물론, 증권 역시 ETF 매수 차익잔고 일부 롤-오버 가능. 전일 초반에 집중된 증권 SP 대량 순 매도가 그것. 계속된다면 SP 시장 상승은 둔화될 것
- 전일 외인은 증권과 반대로 초반에 SP 순 매수 집중. 이는 ELS 헤지 롤-오버 및 회전성 SP 투기 등으로 추정. 수급은 여전히 SP 순 매도 우위지만 SP 매도 수요가 만기일 부근으로 이동한 듯
- 때문에 이후 SP 시장의 상승은 둔화될 것이며 만기일 부근에는 일시적 하락도 가능. 단, 외인 기준 고 평가여서 매수 차익잔고는 '이론상' 롤-오버 가능해 만기일 증가 충격 가능성은 낮은 편

구분	외인	투신	보험	국가/기금	증권	합계
금일	매수 31,389	3,025	94	258	8,543	43,379
매도	30,624	1,701	1	0	10,622	43,361
순매수	765	1,324	93	258	-2,079	18
누적	매수 38,942	3,262	218	268	10,666	55,671
매도	40,785	1,891	-69	0	11,560	55,653
순매수	-1,843	1,371	287	268	-894	18

개장 전~장 중 이벤트 (*시간은 우리시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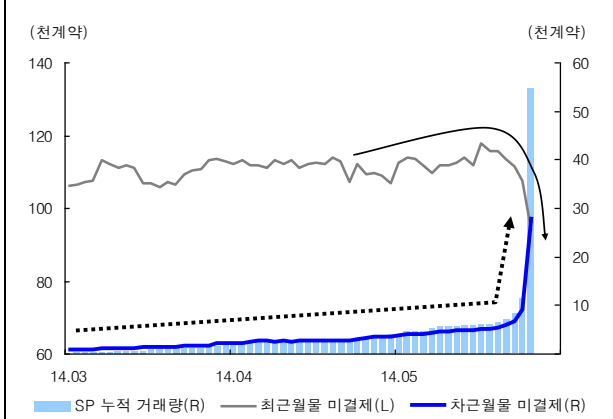
- 10:30, CH, 5월, PPI 전년비, 예상 -1.50%, 이전 -2.00%
- 10:30, CH, 5월, CPI 전년비, 예상 +2.40%, 이전 +1.80%
- 15:00, JN, 5월P, 공직자계 수주 전년비, 이전 +48.70%

마감 후 이벤트 (*시간은 우리시간 기준)

- 20:30, US, 5월, NFIB 소기업 낙관지수, 예상 95.8, 이전 95.2
- 23:00, US, 4월, JOLTs 신규 고용, 예상 407.5만 명, 이전 401.4만 명
- 23:00, US, 4월, 도매 재고 전월비, 예상 +0.50%, 이전 +1.10%
- 23:00, US, 4월, 도매 무역 판매 전월비, 예상 +0.90%, 이전 +1.40%

MA	5	20	60	Pivot	High	Low
	260.83	261.41	258.78	260.47	261.58	258.83

[Fig 1] SP 거래 급증 단 롤-오버에 비해 회전성 투기가 더욱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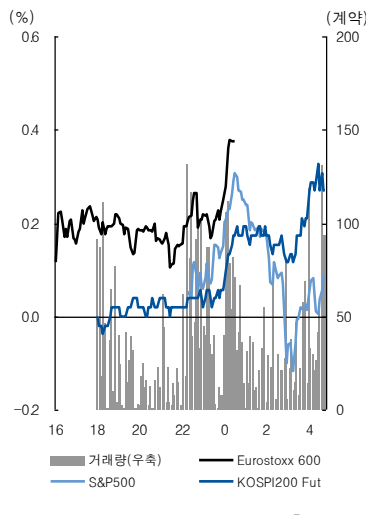
* 본 자료는 순수 현/선물 수급 분석 위주. 펀드매달이나 자료에 대한 해석은 현물 쪽의 자료를 참고할 것

[table 1] 주체별 현물 매매 분해: PR과 종목 순매도 증등, 시총 상위 대형주 순매도로 지수 하락 압력 높아

구분	외국인	투신+사모	연기금	금융투자	은행	보험	국가
당일	차익 63	117	26	0	0	391	13
	비차익 1,774	-81	259	628	12	-45	64
	개별 종목 -1,625	-676	-42	-457	-78	-179	26
주간	차익 965	12	51	0	0	469	13
(직전 5일간)	비차익 3,498	-1,740	1,022	-2,436	-77	685	207
	개별 종목 -969	-1,703	1,340	-2,048	-512	-101	218

[CME 아간시장 동행 주간 증가 대비 +0.27%. 아간선물/옵션 거래량은 극도로 부진

- 아간선물은 미 증시 상승에 주간 증가 대비 +0.27% 상승 마감. 미 증시가 장중반 반락했음에도 아간선물은 하락 제한. 연휴가 끝났음에도 거래량은 극도로 부진해 5천 계약 하회
- S&P500에 대한 아간선물의 베타는 0.25로 낮은 편. 그러나 미 증시 장중 반락에도 불구하고 아간선물은 소폭 조정에 그쳤으며 미 증시 막판 반등에 1:1 반응하며 민감하게 반응
- 선물 외인, +801계약 누적하며 4일 연속 순매수. 미 증시 개장부터 순매수를 누적해 역회전 없이 마감. 미결제 증가해 신규매수 유력한 듯
- 아간 옵션은 만기 근접했음에도 거래량 하락. 상대적으로 풋 거래량이 많아 PCR은 1.0 상회



* Point: 선물 외인의 신규매수는 주간 증시에 긍정적. 단, 아간선물과 옵션 거래량 급감은 디커플링 가능성을 암시

아간 선물	전일 대비	시가	고가	저가
260.90	0.70	260.15	261.05	260.05
거래량		미결제		장 중 최대
4,474		231		330
구분	외국인	개인	증권	기타법인
순매수 계약	801	-523	-308	-3
S&P500 지수		EuroStoxx600 지수		Nikkei
베타	상관계수	베타	상관계수	베타
0.245	0.374	0.144	0.219	0.036
구분	콜 6월물 (242~275)		풋 6월물 (245~270)	
가격/거래량	18.90-0.01	22,203	0.01-10.00	26,172
구분	콜 7월물 (265~277)		풋 7월물 (237~260)	
가격/거래량	1.48~0.12	88	0.14~3.05	153

이 조사는 고객의 투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이 조사 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시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.